

보도시점 2026. 3. 19.(목) 06:00
< 3.19.(목) 석간 >

배포 2026. 3. 18.(수)

기업 의견 반영해 정상 경제·통상외교 성과 높인다

- 여한구 본부장 주재 「정상 경제행사 성과관리 TF」 제2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3.19(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대 경제단체, KOTRA, 관련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상 경제행사 성과관리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정상회담 계기 민간 기업 간(B2B) 협력 성과를 준비·관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이다. 금번 회의는 2025.12월 제1차 회의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됐으며 기업 의견을 정상 경제통상외교에 반영하는 방안과 최근 정상회담 계기 도출된 B2B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의됐다.

먼저, 향후 추진될 정상 경제통상외교 활동과 관련해 정부와 경제단체는 기업의 협력 수요, 애로사항, 무역장벽 등 현장의 의견을 정기 조사 및 수시 접수의 두 가지 방식(Two-track)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등 5대 경제단체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매 분기 기업 의견을 조사하고, 산업부는 기존 웹사이트인 ‘경제외교 활용포털’^{*}을 개편해 3월 중 온라인상의 ‘기업 Help Desk’를 신설하여 수시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집된 의견이 정상 경제통상외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정상외교 경제성과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웹사이트(<https://president.globalwindow.org>)

아울러, 참석자들은 우리 정상의 지난 1월 중국, 3월 필리핀 방문 및 2월 브라질 대통령 방한 계기에 도출된 민간 협력 성과 42건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5대 경제단체와 함께 기업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앞으로 추진될 정상외교 일정과 의제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정상회담 계기에 도출된 B2B 협력 과제를 철저히 관리해 성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근용(044-203-5680)
		담당자	사무관	문성용(044-203-5684)



1. 추진 배경

- 정상 경제통상외교 관련 경제단체와 협력해 기업 의견 수렴* 추진
 - * “기업이 어떤 아이템, 어떤 국가, 시기 등 의견을 주면, 이를 정상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순방 내용도 그 중심으로 재편하겠음(대통령, 2.4, 기업인간담회)”
- 중국 국민 방문(1.4~7), 브라질 대통령 방한(2.22~24), 필리핀 국민 방문(3.3~4) 등 정상 경제행사 계기 B2B 성과 관리·점검

2. 회의 개요

- (일시) ‘26.3.19(목) 10:00~11:00 / (장소) 대한상의 1층 EC룸
- 참석자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협력국장, 통상정책총괄과장, 동북아 통상과장, 아주통상과장,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 등
 - (기관·기업)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KOTRA, B2B 성과 관련 기업인 등

3. 세부 일정 및 논의 안건

시 간		내 용
10:00-10:03	(3분)	통상교섭본부장 모두 발언
	(5분)	(안건1) 정상 경제통상외교 관련 기업 의견 조사 및 반영 계획
10:03-10:58	(10분)	(안건2) 최근 정상 경제통상외교 B2B 성과 및 향후 조치 계획
	(40분)	자유 토론
10:58-11:00	(2분)	통상교섭본부장 마무리 발언